

에베소서 1:8-9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ε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φρονήσει(1:8하)를 중심으로 —

최갑중*

1. 들어가는 말

고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원전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언어가 지닌 사회-문화적 간격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단어 의미와 문체적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에 에베소서의 우리말 번역은 특히 어렵고 까다롭다. 주된 이유는 두 가지 사실에 연유한다. 하나는 에베소서에는 신약성경 중에 단 한 번 나타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희귀 단어들(*hapax legomena*)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¹⁾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는 우리 말 어순과 다른 여러 개의 복합문으로 구성된 매우 긴 문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

* Iliff School of Theology & University of Denver에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Evangelia University 신약학 교수. gchoi@evangelia.edu.

- 1) 에베소서에는 적어도 41개 이상의 희귀 단어가 나타나는 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ἐκκληρώθην(1:11), προηλπικότητας(1:12), μέγεθος(1:19), ἄθροι(2:12), μεσότοιχον(2:14), συμπολίται(2:19), συναρμολογουμένη(2:21), συνοικοδομεῖσθε(2:22), σύσσωμα(3:6), συμμετοχα(3:6), πολυποίκιλος(3:10), ἐξισχύσητε(3:18), ἐνότηता(4:3), ἡχμαλώτευσεν(4:8), κατώτερα(4:9), καταρτισμὸν(4:12), κλυδωνιζόμενοι(4:14), κυβεία(4:14), μεθοδείαν(4:14), ἀπηληγρότες(4:19), ἀνανεοῦσθαι(4:23), ἐπιδύετω(4:26), παροργισμῶ(4:26), αἰσχροτύτης(5:4), μωρολογία(5:4), εὐτραπελία(5:4), κρυφῆ(5:12), ἐπιφάσει(5:14), ἄσοφοι(5:15), ἄσοφοι(5:7), ῥυτίδα(5:27), ἐκτρέφει(5:29), μακροχρόνιος(6:3), εὐνοίας(6:7), πάλη(6:12), κοσμοκράτορας(6:12), ἐτοιμασία(6:15), θυρεὸν(6:16), βέλη(6:16), προσκαρτερήσει(6:18), ἀνοίξει(6:19).
- 2) 에베소서에는 70개 이상의 어휘로 구성된 문장이 8개 이상 나타나는데 이들은 에베소서 전체 분량의 46%를 점유한다(괄호의 숫자는 단어 수를 가리킨다): 1:3-14(202), 1:15-23(169),

에베소서 ‘프롤로그’(prologue), ‘찬송문’(eulogy), 혹은 ‘복문’(berakah)으로 불리는 1:3-14의 문장은 에베소서 전체 문장 중에서 가장 번역하기가 어렵다.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찬송문이 신약성경 본문에서 가장 긴 단일 문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 연(聯, stanza) 혹은 네 연³⁾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詩)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찬송문 중에서 특히 둘째 연에 속하는 1:8-9는 번역하기가 까다로워 교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번역자들과 주석가들 사이에 쟁점이 되어 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8절 끝에 있는 전치사 구절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모든 지혜와 총명으로”)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인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 동사인 ἐπερίσσευσεν(‘그가 넘치게 주시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9절 서두 분사절인 γνωρίσας ἡ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로 보는 경우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문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된다.

소위 쟁점이 되는 에베소서 1:8-9의 그리스어 본문은 아래와 같은데, 흠정역(King James Version)의 근간이 된 비잔틴 본문(*Textus Receptus*)과 Nestle-Aland 계열의 비평 본문은 서로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것은 번역상의 차이점이 그리스 본문의 상이성(相異性)에 오는 것이 아닌, 똑같은 원전 본문에 대한 읽기와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뜻한다.

8 ἥς ἐπερίσσευσεν εἰς ἡμᾶς,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9 γνωρίσας ἡ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 κατὰ τὴν εὐδοκίαν αὐτοῦ ἣν προέθετο ἐν αὐτῷ

2:1-7(124), 3:2-13(189), 3:14-19(126), 4:1-6(71), 4:11-16(125), 6:14-20(113).

3) J. H. Barkhuizen, “The strophic structure of the eulogy of Ephesians 1:3-14”, *Harvard Theological Studies* (1990), 390-413은 엡 1:3-14를 3-6, 7-12, 13-14의 세 연으로 나눈다. 그리고 첫 연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둘째 연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셋째 연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F. 틸만, 『에베소서』,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최갑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79-81은 1:3-14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세 번 반복되는 Ἐν ᾧ를 중심으로 네 연(3-6, 7-10, 11-12, 13-14)으로 나눈다.

4) 별도의 표시가 없는 모든 번역은 필자의 사역임을 밝혀 둔다.

우리말 성경 중 가톨릭 『성경』을 제외한 대다수는 8절 끝에 있는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이것을 9절 분사절이 아닌 8절의 동사와 연결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1) 『개역개정』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⁵⁾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2) 『공동』

8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9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3) 『새번역』

8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4) 『현대인의 성경』

8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9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5) 가톨릭 『성경』

8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의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8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9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5) 밑줄은 강조를 위해 임의로 붙인 것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의 경우 가톨릭 『성경』에서 만 8절 끝에 있는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번역할 뿐, 다른 번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처럼 8절의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⁶⁾ 하지만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류 영어 성경은 아래와 같이 8절의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의 주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이 지칭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수식하거나, 아니면 9절의 하나님의 행동을 지칭하는 분사 동사 *γνωρίσας*와 연결을 시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번역하고 있다.

(1) RSV(Revised Standard Version)

8 which he lavished upon us. 9 For he has made known to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purpose which he set forth in Christ

(2) NRS(New Revised Standard Version)

8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insight 9 he has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that he set forth in Christ,

(3)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8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9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4) NAS(New American Standard Bible)

8 which He lavished 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9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set forth in Him,

(5) NABRE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8 that he lavished up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9 he has made known to

6) 예를 들면, King James Version, Christian Standard Bible, American Standard Version,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 Modern English Version.

us the mystery of his will in accord with his favor that he set forth in him

(6) GNT(Good News Translation)

8 which he gave to us in such large measure! In all his wisdom and insight 9 God did what he had purposed, and made known to us the secret plan he had already decided to complete by means of Christ.

(7) WE(Worldwide English New Testament)

8 He has given us blessing after blessing in his wisdom and understanding. 9 He has shown us the plan he had. This plan was what he wanted to do through Christ.

(8) ESV(English Standard Version)

8 which he lavished upon us, in all wisdom and insight 9 making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purpose, which he set forth in Christ.

그렇다면 에베소서 1:8-9에 대한 한글 성경 번역과 주류 영어 성경 번역 사이에 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게 되는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각각 다른 원문 성경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글 성경과 주요 영어 번역상의 차이는 그리스어 본문 상의 차이점이 아닌, 똑같은 원전 본문에 대한 읽기와 이해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8-9의 그리스 본문을 어떻게 읽고 번역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먼저 8절 끝에 나오는 전치사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 주어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의 방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한글 성경처럼 동사와 연결되는 일종의 간접목적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8절의 전치사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의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과 연결을 시켜 볼 것인지, 아니면 9절 서두에 나오는 분사인 *γνωρίσας*를 수식하는 것으로, 즉 9절 분사의 주어인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방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2. 에베소서 1:8의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는 8절 끝에 있는 전치사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의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과 연결되는 일종의 간접적인 목적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사의 행동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가는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전치사 ἐν 문구가 문장에서 수단은 물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⁷⁾ 그렇다고 해서 8절의 ἐν 문구가 두 용도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구문법과 전후 문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⁸⁾ 그런데 앞의 한글 성경 실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ἐ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φρονήσει를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의 직접적인 목적어처럼, 이럴 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대상인 일종의 선물처럼 번역하고 있다. 즉, 『개역개정』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로, 『새번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로 번역한다.

하지만 속격 단수 여성 관계대명사 ἧς로 시작하는 8절은 구문법적으로 볼 때 8절 끝에 있는 전치사구 ἐ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φρονήσει가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 ἧς이며, ἧς의 선행사는 7절 끝에 있는 전치사구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에 있는 τῆς χάριτος이다. 7절의 τῆς χάριτος가 속격이기 때문에 8절을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ἧς가 이와 격을 맞추도록 속격으로 표기된 사실이 이를 의심하지 않게 한다.⁹⁾ NTG²⁸ 본문도 7절 끝에 있는 전치사구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와 8절의 관계대명사 사이에 아무런 쉼표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전치사구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8절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임을 분명하게 한다.¹⁰⁾

7) F. Blass, A. Debrunner, and R.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3), 196, 219(1), (2); F. W. Danker, W. Bau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328⁵⁾, 329⁹⁾.

8) F. 틸만, 『에베소서』, 106.

9)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338-339; E. Johnson, *A Semantic Structural Analysis of Ephesians* (Dallas: SBL International, 2008), 50. 그래서 조경철, “성서주석과 번역-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116은 “그리스어 원전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목적은 관계대명사 속격(ἧς)으로 나와 있고,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7절 말미에 나오며, 이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라고 지적한다.

10) 이점과 관련하여 1:7-8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조 도표는 도움이 된다:

7 Ἐν ᾧ
 ἔχομεν τὴν ἀπολύτρωσιν
 διὰ τοῦ αἵματος
 αὐτοῦ,
 τὴν ἄφεσιν
 τῶν παραπτωμάτων,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글 성경과 일부 주석들이 8절의 ἐ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φρονήσει를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목적어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번역하는 이유는, 아마도 에베소서 1:17과 골로새서 1:9에 있는 바울의 기도문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¹⁾ 사실 에베소서 1:17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πνεῦμα σοφίας καὶ ἀποκαλύψεως)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서 1:9의 바울의 기도문에도 에베소서 1:8과 거의 같은 문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πάση σοφία καὶ συνέσει πνευματικῆ)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채워 주시는 대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편지를 지참한 자가 에베소 신자들 앞에서 에베소서 1:8을 낭독하였을 때 그들은 1:17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17에는 1:8에 있는 “지혜”라는 말은 나타나지만 “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17에서 “지혜”가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1:8의 “지혜”도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1:8의 “지혜와 총명”이 근접한 문맥인 1:7-9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냐는 것이다.

골로새서 1:9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많은 유사한 어휘와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저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에베소서 본문을 듣는 독자가 골로새서 본문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¹²⁾ 게다가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는 전치사구 ἐ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συνέσει(‘모든 지혜와 총명으로’)의 어휘가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어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교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8 ἧς ἐπερίσσευσεν εἰς ἡμᾶς,
ἐν πάση σοφία
καὶ φρονήσει,

11) 예를 들면, A.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2 (Dallas: Word, 1990), 17; R. Schnackenburg,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 Commentary*, H. Heron, trans. (Edinburgh: T&T Clark, 1991), 56-57; P. Pokorný,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64; 박창건, 『에베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61-62; P. T. O'Brie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9), 107; J. Muddima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Continuum, 2001), 72; J. P. Heil, *Ephesians, Empowerment to Walk in Love for the Unity of All in Christ*,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3 (Atlanta: SBL, 2007), 65.

12) F. 틸만, 『에베소서』, 106-107.

에베소서 1:8의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방편인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읽고 있다.¹³⁾

이점에 있어서 찬송문에서 8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6절의 경우가 도움이 된다. 6절도 8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선행사(τῆς χάριτος), 관계대명사(ἧς), 동사(ἐχαρίτωσεν), 인칭대명사(ἡμᾶς), 전치사구(ἐν τῷ ἡγαπημένῳ)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동사 ἐχαρίτωσεν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ἧς이며, 그 선행사는 τῆς χάριτος이다. 그리고 전치사구 ἐν τῷ ἡγαπημένῳ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오히려 주어인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방편 혹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따라서 8절의 전치사 구문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는 문법적으로나 문체적으로나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독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¹⁵⁾

3.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는 에베소서 1:8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가, 1:9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영어 성경 실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류 영어 성경들(RSV, NRSV, NIV, NASB, NAB, GNT, ESV)은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에베소서 1:8이 아닌 그 다음절인 1:9의 분사절 γνωρίσας ἡ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와(‘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사’) 연결을 시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경우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수단이 된다. 즉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된다. 주류 영어 성경 번역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석과 학자들도 그렇게 읽고

13) 예를 들면, J. Chrysostom, *Patrologia graeca* 62:14-15; J. Eadi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T Clark, 1883), 44-49; G. Sellin, *Der Brief an die Epheser*, Meyers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99-100; F. 틸만, 『에베소서』, 105-107.

14) B. I. Simpson, *Ephesians, An Exegetical Guide for Preaching and Teaching*, Big Geek Idea Series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2020), 75.

15) H. W. Hoehner,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212-23; B. L. Simpson, *Ephesians*, 78.

있다.¹⁶⁾ 물론 문법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NTG²⁸⁾ 본문도 8절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문구 앞과 뒤에 각각 쉼표를 붙여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둔다.

하지만 문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를 8절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9절과 연결을 시켜 읽을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하나는 일종의 시적 구조를 가진 1:3-14의 찬송문 안에서 전치사 구문이 주로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1:3-14의 일반적인 전치사구 용법과 맞지를 않는다는 점이다.¹⁷⁾ 또 하나는 분사절인 9절을 그 앞에 있는 7-8절과 분리를 시켜 둘째 연(stanza) 문장의 중심을 동사를 가진 7-8절이 아닌 분사와 부정사 구문으로 이루어진 9-10절에 두게 된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만일 우리가 1:3-14의 찬송문을 각각 강조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6절, 12절, 그리고 14절에서 똑같이 3번 반복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εἰς ἔπαινον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를 중심으로 1:3-6(하나님), 1:7-12(그리스도), 1:13-14(성령)의 세 연으로 나눌 수 있다면,¹⁸⁾ 첫 번째 연에는 ἐν 전치사구가 6번, 둘째 연에는 7번, 그리고 셋째 연에는 2번 사용되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8절이 속해 있는 둘째 연 앞에 있는 첫째 연의 경우를 살펴보면, 1) 3절에 세 번 나오는 ἐν 전치사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사 εὐλογήσας(‘그가 복을 주신’) 뒤에 나온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수식하는 두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ῖς ἐπουρανίοις(‘하늘에서’)를 제외하고는 다 분사 동사 εὐλογήσας를 수식하고 있다. 2) 4절에 나오는 두 전치사구 ἐν αὐτῷ, ἐν ἀγάπ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뜻하는 동사 ἐξελέξατο(‘그가 선택하셨다’) 뒤에 위치하면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3) 6절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전치사구 ἐν τῷ ἠγαπημένῳ(‘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동사 ἐχαρίτωσεν(‘그가 거저

16) 예를 들면, J. 그닐카, 『에페소서』, 강원돈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142; E. Best, *Ephesians, A Short Commentary* (London: T & T Clark, 2003), 22; 조경철, “성서주석과 번역-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사례를 중심으로”, 116; C. E. Arnold, *Ephes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86; 길성남,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90-91; B. Wintle, *Ephesians* (Cumbria: Langham Publishing, 2020), 9.

17) B. L. Merkle, *Ephesians* (Nashville: B&H Academic, 2016), 26.

18) J. Cambier, “La bénédiction d’Eph 1,3-14”,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54 (1963), 58-104; J. H. Barkhuizen, “The strophic structure of the eulogy of Ephesians 1:3-14”, 404-405; B. I. Simpson, *Ephesians*, 66, 78.

주셨다') 뒤에 위치하면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다음 둘째 연 다음에 나오는 셋째 연 경우를 보면 13절에 2번 나오는 전치사구 'Εν ᾧ는 각각 접속사 καὶ를 동반하는 분사 동사 ἀκούσαντες('또한 여러분이 들었던')와 πιστεύσαντες('또한 여러분이 믿었던') 앞에 위치한다. 하지만 다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여격 남성 단수 관계대명사 ᾧ와 함께 나오는 두 'Εν ᾧ 전치사구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일반적인 전치사구가 아닌, 1:3-14의 전체 찬송문의 시적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인칭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일종의 수사학적 독립 전치사구로 볼 수 있다. 찬송문 7절 서두에 처음 나오는 'Εν ᾧ 전치사구가 직전에 있는 6절 끝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ἐν τῷ ἠγαπημένῳ('그 사랑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이들 전치사구의 경우 분사절을 수식하는 일반적인 전치사구 것처럼, 즉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들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믿었다'보다도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들었다'와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믿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셋째 연에 있는 분사절 앞에 나오는 'Εν ᾧ 전치사구를 1:8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전치사구가 8절이 아닌 9절의 분사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문제가 되는 둘째 연 1:7-11에 나오는 7번의 전치사구 경우를 살펴보자. 둘째 연에는 앞서 설명한 독립형 전치사구 'Εν ᾧ가 7절 서두와 11절 서두에 두 번 나온다. 하지만 다른 5번의 경우 모두 동사나 동사 부정사나 분사 뒤에 나온다. 8절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전치사구는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 뒤에, 9절의 ἐν αὐτῷ 역시 동사 προέθετο 뒤에, 10절의 ἐν τῷ Χριστῷ와 ἐν αὐτῷ는 각각 부정사 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뒤에, 그리고 12절의 ἐν τῷ Χριστῷ는 분사 προηλπικότας('그가 이전부터 바랬던') 뒤에 나오면서 모두 그 앞에 있는 동사들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1:3-14의 찬송문에 있는 일반적인 전치사구가 모두 동사 뒤에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8절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전치사구만을 이례적으로 8절의 동사가 아닌 9절의 동사 분사 γνωρίσας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제 둘째 문제인 8절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전치사구를 9절의 동사 분사 γνωρίσας와 연결을 시켜 둘째 연의 중심을 7절이 아닌 9절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당한지를 살펴보자.²⁰⁾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19) P. T. O'Brien, *Ephesians*, 105; F. 털만, 『에베소서』, 100; B. I. Simpson, *Ephesians*, 75.

는 문제가 되는 1:7-9의 그리스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에 속하는 1:7-9의 NTG²⁸ 본문은 다음과 같다.

7 Ἐν ᾧ ἔχομεν τὴν ἀπολύτρωσιν διὰ τοῦ αἵματος αὐτοῦ, τὴν ἄφεσιν τῶν παραπτωμάτων,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8 ἥς ἐπερίσσευσεν εἰς ἡμᾶς,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9 γνωρίσας ἡ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 κατὰ τὴν εὐδοκίαν αὐτοῦ ἣν προέθετο ἐν αὐτῷ

위의 그리스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관건은 9절의 분사절을 8절의 관계대명사절과 연결을 시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분리를 시켜 독립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있다. 8절과 연결을 시켜 읽을 경우, 9절의 γνωρίσας 분사절은 8절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어 주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는 종속절이 된다.²¹⁾ 그럴 경우 문장의 무게추는 9절이 아닌 8절의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7절의 내용,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속량, 죄 사함에 두어지게 된다. 반대로 8절 끝에 있는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전치사구를 8절이 아닌 9절의 분사절과 연결을 시켜 읽을 경우 무게추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실을 말하는 9절에 두어지게 된다.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하지만 어떻게 읽는 것이 둘째 연의 전체 흐름과 내용에 더 부합하는가를 살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1:7-12의 둘째 연의 경우 각각 7절과 12절 서두에 나오는 Ἐν ᾧ(‘그분 안에서’)를 중심으로 7-10절, 11-12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연에서 오직 7절과 11절의 평행 문구 Ἐν ᾧ 다음에 1인칭 복수 동사 ἔχομεν(‘우리가 받았다’)과 ἐκκληρώθημεν(‘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사실상 서로 평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치사 문구 Ἐν ᾧ와 에베소서 저자와 독자를 함께 묶는 1인칭 복수 동사 사용은

20) 예를 들면 길성남,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90-91에서 8절의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전치사구를 그 뒤에 나오는 9절의 분사 동사 γνωρίσας와 연결을 시키고 9절을 다음과 같이 7-8절과 분리된 독립된 분사절로 번역한다: “7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시다. 8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9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1) 역시 B. I. Simpson, *Ephesians*, 78.

각각 Ἐν ᾧ로 시작하는 7-10절과 11-12절 또한 서로 평행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²²⁾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1-12절의 문장 용법이 나아가서 7-11절의 용법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찬송문의 시적 구조에서 한 연(stanza)을 구성하는 마디(strophe) 역시 독자들의 이해와 운율을 위해 종종 서로 평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먼저 둘째 연에서 두 번째 Ἐν ᾧ로 시작하는 마디 11-12절을 보면 동사 1인칭 복수 동사 ἐκκληρώθημεν 다음에 세 분사절이 나타난다. 각각 그 용법을 살펴보면, 11상반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분사절을 이끄는 προορισθέντες(‘우리가 예정된’)는 그 앞에 있는 동사 ἐκκληρώθημεν을 수식하고, 11하반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분사 ἐνεργοῦντος(‘그가 일하시는’)는 그 앞에 나오는 προορισθέντες를 수식한다. 그리고 12절의 부정사 구문에 나오는 분사절 τοὺς προηλπικότας(‘그들이 이전부터 바랬던’)는 12절의 부정사 구문에서 사실상 주어 역할을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 ἡμᾶς를 수식하고, 전체 부정사 구문은 11절의 주동사 ἐκκληρώθημεν과 연결된다. 따라서 둘째 연 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 모든 분사절, 부정사 구문은 사실상 11절에 나오는 둘째 마디의 주동사 ἐκκληρώθημεν을 설명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7-12의 둘째 연의 첫 번째 마디 7-10절에 나오는 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8절), 이를 수식하는 분사 γνωρίσας(9상반절), 분사 γνωρίσας(9하반절)를 수식하는 동사 προέθετο(10절), 이를 수식하는 부정사 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10절) 등이 모두 7절의 Ἐν ᾧ 구문의 주동사 ἔχομεν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시적 구조로 형성된 둘째 연의 흐름을 볼 때 8절 끝에 있는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전치사구를 9상반절의 분사 동사가 아닌 8절의 동사와 연결을 시켜 이해하여야 할 뿐 아니라, 9절 이하의 γνωρίσας 분사절 역시 8절의 동사와 연결을 시켜 이해하여야 함을 시사한다.²⁴⁾

22) F. Lang, “Die Eulogie in Epheser 1,3-14”, L. Abramowski and J. F. G. Goeters, eds., *Studien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 Festschrift für Ernst Biz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11-12; T. M. Winger, *Ephesian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5), 182, 197.

23) F. Lang, “Die Eulogie in Epheser 1,3-14”, 11.

24) 1:7-10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조 도표가 이점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7 Ἐν ᾧ

ἔχομεν τὴν ἀπολύτρωσιν
διὰ τοῦ αἵματος
αὐτοῦ,
τὴν ἄφεσιν
τῶν παραπτωμάτων,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4.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3-14의 “찬송문” 안에 있는 1:8의 전치사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중심으로 1:8-9의 번역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이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8절의 주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을 수식하는 목적어처럼 이해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주류 영어 성경은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9절의 분사 동사 γνωρίσας를 수식하는 일종의 수단 전치사구로 이해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한 문법적, 구문론적, 구조적 조사를 통하여 전치사구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1:9의 분사 γνωρίσας를 수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1:8의 주동사 ἐπερίσσευσεν을 수식하는 일종의 수단적 전치사구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라는 것이다. 아울러 9절의 분사절은 8절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1:8-9에 대한 우리말 성경과 주류 영어 성경 번역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차후 우리말 성경 번역 개정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1:7-10의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우리의 번역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1:8-9 만이 아닌 1:7-10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는 것은 1:7-10이 하

8	ἥς ἐπερίσσευσεν εἰς ἡμᾶς,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9a	γνωρίσας ἡμῖν 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
9b	κατὰ τὴν εὐδοκίαν αὐτοῦ ἣν πρόεθετο ἐν αὐτῷ
10	εἰς οἰκονομίαν τοῦ πληρώματος τῶν καιρῶν, 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 τὰ πάντα ἐν τῷ Χριστῷ, τὰ ἐπὶ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 ἐν αὐτῷ.

나의 문학적 마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7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8-9상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이며, 9하반-1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통일하기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분 안에서 예정하신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주제어>(Keywords)

한글 성경 번역, 에베소서 찬송문, 에베소서 1:8-9,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성경 읽기.

Korean Bible Translation, Eulogy of Ephesians, Ephesians 1:8-9,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ει, Scripture Reading.

(투고 일자: 2023년 12월 28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1일)

25) 1:7-10의 구문에서, 각주 24에 있는 구조 도표가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8절의 관계대명사 절은 7절의 마지막 전치사 구절을 수식한다. 그리고 9상반절의 분사절은 8절의 동사를 수식하고, 10절의 부정사 구문은 9하반절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를 수식하고, 관계대명사절은 7절의 마지막 전치사 구문의 경우처럼 9절의 전치사 구문을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7절, 8-9상반절, 9하반-10절을 각각 묶어 번역하였다.

<참고문헌>(References)

- 그닐카, J., 『에페소서』, 강원돈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 길성남, 『에페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 박창건, 『에페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조경철, “성서주석과 번역-골로새서와 에페소서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110-131.
- 틸만, F., 『에페소서』,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최갑종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Arnold, C. E., *Ephes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Barkhuizen, J. H., “The strophic structure of the eulogy of Ephesians 1:3-14”, *Harvard Theological Studies* 46/3 (1990), 390-413.
- Best, E., *Ephesians*, A Short Commentary, London: T & T Clark, 2003.
- Blass, F., Debrunner, A., and Funk, R. W.,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3.
- Cambier, J., “La bénédiction d’Eph 1,3-14”, *ZNW* 54 (1963), 58-104.
- Chrysostom, J., *Patrologia graeca*, vol. 62.
- Danker, F. W., Bauer, W., Arndt, W. F., and Gingrich, F.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Eadie, J.,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T Clark, 1883.
- Hoehner, H. W.,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Johnson, E., *A Semantic Structural Analysis of Ephesians*, Dallas: SBL International, 2008.
- Lang, F., “Die Eulogie in Epheser 1,3-14”, L. Abramowski and J. F. G. Goeters, eds., *Studien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 Festschrift für Ernst Biz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7-20.
- Lincoln, A. T.,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2, Dallas: Word, 1990.
- Merkle, B. L., *Ephesians*, Nashville: B&H Academic, 2016.
- O’Brien, P. T., *The Letter to the Ephesian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9.
- Pokorný, P., *Der Brief des Paulus an die Ephes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Schnackenburg, R.,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 Commentary*, H. Heron, trans., Edinburgh: T & T Clark, 1991.

Sellin, G., *Der Brief an die Epheser*, Meyers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 über das Neue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Simpson, B. I., *Ephesians, An Exegetical Guide for Preaching and Teaching*, Big Geek Idea Series,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2020.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Winger, T. M., *Ephesians*,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15.

Wintle, B., *Ephesians*, Cumbria: Langham Publishing, 2020.

<Abstract>

**How to Translate Ephesians 1:8-9?:
Focusing on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1:8b)**

Gab Jong Choi
(Evangelia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anslation issues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Bibles regarding the prepositional phrase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in 1:8 of the *hymn* of Ephesians 1:3-14. Most Korean Bibles understand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as an object that modifies the main verb ἐπερίσσευσεν in verse 8, and translate it as “all wisdom and intelligence” that God gives us. On the other hand, major English Bibles understand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as a kind of instrumental prepositional phrase that modifies the participle verb γνωρίσας in verse 9, and translate it as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of God through which God reveals the secret of His will.

Through a grammatical, syntactical, and structural investigation, this article however argues that the prepositional phrase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should neither be translated as an object modifying the main verb ἐπερίσσευσεν in verse 8 as in the Korean Bible, nor as an object serving as a means of modifying the participle γνωρίσας in 1:9, but rather as a kind of instrumental prepositional phrase that modifies the main verb ἐπερίσσευσεν of 1:8. In other words,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should be translated as “in God’s all wisdom and intelligence” which is how He gives us His riches of grace. If our argument is correct, Korean Bible translations and major English translations of Ephesians 1:8-9 should be revised.